



아름다운 만남과 헤어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만남에는 사람과의 만남, 환경과의 만남, 새로운 정보와의 만남이 있다. 사람은 출생하여 성장 발달해 가고 성공하는데 만남이라는 인적 물적 환경과 교호작용을 하며 변화한다. 바람직한 변화가 되도록 안내하고 이끌어 주는 것, 즉 환경과의 교호작용을 돕는 것을 교육이라 한다.

만남에는 새로운 만남을 위해 헤어짐이 있다. 시작에는 반드시 끝이 있듯이 만남에는 회자정리(會者定離)의 헤어짐이 있다.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없이 헤어짐을 결별이라 하며 죽음으로써 만날 수 없는 사별이 있고, 살아서 헤어지는 생이별이 있으며, 다시 만날 수 있는 잠시 헤어지는 작별이 있다.

어떤 헤어짐이든지 서운한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그동안 맺은 정에 따라 헤어짐의 서글픈 눈물을 흘리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수많은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데 서로 좋아서 선택한 결혼으로 부부가 된 아름다운 만남과 다시 만날 것을 언약하고 헤어지는 졸업과 같은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다.

만남에는 학연, 지연, 혈연관계로 만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고 남녀의 결혼과 사업상 이해관계로 만남이 있는데 이것의 헤어짐은 막대한 상처를 주게 되는데 결혼한 부부의 이혼이라는 헤어짐은 큰 상처를 준 헤어짐이다. 어떤 만남이든지 헤어짐이 없는 만남은 없다. 언제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는 하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만남에서 살면서 아름다운 헤어짐을 대비하면서 즐겁게 만나며 살아야 한다.

만나면 친구가 되는 만남은 부담감 없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다. 친구 중에서도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고 사는 진정한 형제 같은 친구의 만남은 자랑스럽고 부러운 만남이다. 미국에서 장수한 사람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장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다.

사람과의 만남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으면 친구가 된다.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람과의 만남은 사람을 만나 사랑하려고(도와주려고) 만나야 한다. 수많은 친구가 있다 함은 수많은 사랑을 돕기 위해 만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나는 지금 도움을 주기 위해 만나러 가고 있다면 친구를 만들러 가는 것이며 내가 장수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만남은 한꺼번에 만날 수 없으므로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만나고 있다. 선별적으로 만나는 만남은 도움을 주는 만남이어야지 헤어짐에 상처를 주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라는 헤어짐은 가장 나쁜 하늘의 저주를 받을 생이별이다. 그러므로 결혼으로 부부가 된 만남은 시작이 서로 선택한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작되었으나, 어쩔 수 없는 사별이라는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동안 서로 도우며(사랑하며) 즐겁게 살면서 아름다운 헤어짐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선에서 전진하며 살고 있는데 만남에서 도움을 주는 만남으로 시작하고, 헤어질 때 피해를 주지 않고 헤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환경과의 만남은 나의 주변에 바뀌는 환경에 접하는 것이며 적게는 방안의 환경, 집안 환경의 변화와 만남이며 크게는 밖에 나가 접하게 되는 자연 환경과 만남이다. 이러한 환경과의 만남은 나를 변화하게 한다. 처음 만났을 때 좋았던 환경이 내가 떠나 때 오염된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내가 떠나면서 다음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고 떠나야 한다.

지식 정보와의 만남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르쳐주면서 비우고 새로운 지식 정보 기능을 받아들여야 한다. 묵은 지식 정보는 비우고 새것으로 바꾸는 지식정보와의 만남은 날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컴퓨터 TV 신문 매체를 이용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새로운 정보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날마다 새로운 만남과 접하는 삶은 나를 젊어지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 만남이 없는 삶은 살아 있어도 죽음과 같은 고독한 삶이며 아름다운 만남과 헤어짐에서 사는 삶은 보람 있고 건전한 삶이다. 우리 인생은 사람과의 만남, 환경과의 만남, 지식정보와의 만남을 꾸준히 하면서,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지는 좋은 결과를 얻으며 살아야 한다.

장마철 전기화재 이렇게 예방합시다

정운유 여주소방서 화확119구조대 소방장

현재 우리나라는 장마철을 지나 무더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마로 인한 피해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외로 이러한 날씨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7~8월이 평월보다 전기화재 발생 비율이 11% 많이 발생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을 정도로 장마철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마철 화재 발생 요인과 그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첫째, 각종 냉방기와 전기제품의 사용이다. 겨울철에는 난방기와 열을 발산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한다면, 여름 장마철에는 고온다습으로 인하여 에어컨, 선풍기 등과 같은 냉방기와 제습기의 사용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전류로 인한 전기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방법은 간단한데, 장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미사용 시 전원을 꺼두거나 콘센트에 코드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둘째,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하는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는 것이다. 콘센트 사이사이에 먼지가 쌓여 습기와 만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구멍에는 보호덮개를 부착하여 화재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마철인 만큼 침수의 위험이 평소보다 배로 증가할 수 있다.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침수로 인한 전기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를 미리 내려놓는 것이 좋다. 또한 물에 젖은 손으로 무리하게 전기제품을 만지게 되면 감전위험이 있으니 소방서에 신고 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록적인 폭우를 달성했던 이번 장마로 인하여 여러 피해를 겪은 분들과 안타까운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 소방과 전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의식을 꾀한 장마철을 보낼 수 있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고

보이스피싱,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박원영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기고



요즘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매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매달 1500여건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며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신저피싱까지 더하면 피해 건수는 전화금융 사기의 2배에 이른다.

최근 발생한 범죄유형을 보면 김·경 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저금리 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대출 사기형 등 기존 수법들이 여전히 가운데 신종수법으로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결제· 해외 탁송 문자메세지를 방치해 통화를 유도, 악성 앱을 설치해 하는 수법, 택배회사나 우체국 결혼·돌잔치 등 모바일 점점상으로 위장한 피싱문자, 가족사칭 문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내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나는, 내 가족은 당하지 않아' 선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소중한 재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할 시점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학교콜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장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견된 침묵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